

# 미국적 신앙의 뿌리와 공민종교의 성립\*

金鍾瑞\*\*

- I. 탈유럽은 출애굽
- II. 맹신을 넘어선 공리주의적 신앙
- III. 종교적 용광로
- IV. 공민종교의 의미

## I. 탈유럽은 출애굽

미국은 흔히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고들 한다. 그리고 그 뿌리가 청교도적 신앙의지였다고 말해진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크리스챤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통계적으로 오늘날도 대충 미국인의 40% 정도가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집회에 참석하고, 60% 이상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로 분류 된다. “신같은 절대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가?” 하는 질문에는 거의 95%가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sup>1)</sup>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종교집단 (primary religious organization)만도 1500 종류가 넘고, 기독교의 종파 (denominations)만도 900 종류가 넘는다.<sup>2)</sup> 최소의 화폐단위인 1 센트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 교수, 종교학.

1) Caplow, Theodore, et al., *All Faithful People: Change and Continuity in Middletown's Relig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pp. 20-30.

2) 특히 1900년 이후 미국의 인구는 3.5 배 늘어났으나, 교인수는 7 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1800년에는 교회가 20개 종파였던 것이 1988년에는 900여개 종파로 된 것이다. 가히 폭발적 성장이고 극도의 분파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

## 2 종교학 연구

(cent)짜리 동전에 조차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서로를 믿는다’(In God We Trust)라고 새겨놓고 있다. 주일날에는 아직도 주류(酒類)를 안 파는 지역들이 많다. 미국인들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곳은 아직도 역시 교회이다.<sup>3)</sup>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인 셈이다.

또 미국의 정신적 지도자 하면 대개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이나 제리 팔웰(Jerry Falwell) 같은 목사들을 상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다. 세속적 지도자들인 역대 대통령 중에도 철저한 무신론자(atheist)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쯤 되니 대통령들이 성경 책 앞에서 취임선서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의 모든 미국적 지도력(leadership)은 기독교적 초월성에 의해 단단히 뒷받침되어 있는 셈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Columbus)부터가 벌써 자신이 성서(The Bible)를 전파할 지상낙원에 가까이 왔다고 믿었었다.<sup>4)</sup> 즉 지리적 발견은 세계로의 복음의 전파에 뒤이어 이교도의 회개와 반기독교도들의 멸망을 가져올 종말의 한 징조로 그의 『예언들의 책(Book of Prophecies)』에서 말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정착부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청교도 종교개혁(the Reformation)의 산물로서 탄생되었다고 한다. 많은 작가들이 미국적 낙원의 이미지들을 응변적으로 창조해낸 바 있다.<sup>5)</sup> 혹자는 경치 좋은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방이나 메릴랜드(Maryland)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이는 팔레스타인(Palestine)과 위도가 같은 조지아(Georgia)에서 에덴(Eden)동산을 발견했었다. 또 매사추세스(Massachusetts)가 바로 신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장소라고

사회내의 모든 자발적인 단체의 75% 이상이 종교단체로 집계되고 있다.(Melton, J. Gordon, *Encyclopedia of American Religions*, 4th ed., Washington D. C.: Gale Research Inc., 1993, pp. 1, 10).

- 3) 1982 갤럽조사 (Patterns of Charitable Giving by Individuals: A Research Report)에 의하면 미국인의 71%가 종교단체에 돈을 내고 있는데 비해, 교육기관에는 32%, 병원에는 24%만이 기부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의 일인당 자선기금은 일년에 총 평균(총 자선기금/ 총인구수) \$475인데 그 중 \$313이 종교단체에 보내지고 있다.(Bellah, R. N., et al., *Habits of the Heart*, New York: Harper & Row, 1985, p. 325에서 재인용).
- 4) 지상낙원으로서의 미국적 이미지에 대하여 Eliade, Mircea,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p. 92-93 참조.
- 5) Ibid., pp. 94-95.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삶의 고통은 흔히 설교 속에서 약속된 지상낙원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 도덕적·영적 시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졌다. 개척자들은 스스로를 흥해를 건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영국과 유럽에서의 그들의 옛 상황을 마치 애굽(Egypt)에서의 속박된 삶이었던 것으로 여겼다. 즉 탈유럽은 곧 출애굽(Exodus)이었다.

한편 서부의 개척과 함께 태양상징(Solar Symbolism)이 도입되었다.<sup>6)</sup> “태양처럼 화문은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졌다. 초기의 서부 개척자들은 태양을 따라서 낙원으로 간 최초의 인물들이었다. 그러므로 도덕적 재생과 보편적 구원의 마지막 드라마가 그들과 더불어 생길 것이라 기대되었다.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나온 것은 좀 더 나중의 일이다. 탈유럽이 출애굽으로 생각될 때 미대록은 가나안 땅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민은 곧 청교도 후예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관계로 풀이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설은 원시 기독교(Primitive Christianity)에로의 상징적인 복귀를 요했다.<sup>7)</sup> 매서(Cotton Mather)는 뉴잉글랜드에서 기독교 초기시대의 부활을 기대했다. 영국과 유럽으로부터의 탈피는 그들 쪽의 교회를 떠나서 개척자들이 다시 초대 교회의 덕들로 복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주요 기독교적 덕목은 원초적인 순박함(simplicity)이었다. 지식, 문화, 학문, 예절, 사치 등은 그들에게 모두 악마의 창조물들이었다. 식민지 미국 사람들의 단순한 생활과 도덕적 우월성은 영국인들의 타락된 관습에 대조되었다. 즉 순박한 가운데 도덕적 우월함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미국은 다시 ‘거듭날(born again)’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졌다. “새로움(novelty)” 속에서 그들은 “르네상스(re-naissance)”를 기대했다. 뉴잉글랜드(New England), 뉴욕(New York), 뉴헤이븐(New Haven) 이런 모든 이름들은 남겨 두고 떠나온 고향땅에 대한 노스탈지뿐만 아

6) *Ibid.*, pp. 92-93.

7) 이러한 원시 기독교의 순박함에로의 복귀경향에 대하여 *Ibid.*, pp. 96-97과 Albanease, Catherine, *Sons of the Fathers: The Civil Religion of the American Revolu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67, Ch. 1 그리고 Gilpin, W. Clark, “Recent Studies of American Protestant Primitivism,” *Religious Studies Review* 19/3 (1993): 231-235 참조.

니라, 이들 새로운 도시 속에서 삶의 새로운 차원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들이었다. 결국 새로움에의 추구라는 “미국적 생활방식(American Way of Life)”은 거듭남의 종교적 의미가 그 뿐만 아니라 있는 셈이다.<sup>8)</sup>

미국 작가들의 “아담적 동경심(the Adamic Nostalgia)”은 이런 모든 종교적 의미들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호돈(Nathaniel Hawthorne)은 옛날의 으리으리했던 귀족 가문들과 왕권 및 구제도들의 상징들 그리고 마침내 온 유럽적 문학과 철학을 태워 없애 버리는 거대한 불길의 꿈을 나타내고 있다(*Earth's Holocaust*). 또 소로우(Thoreau)는 “태워버릴 용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집에 쌓아 두었던 많은 잡동사니 꾸러미를 지난 채 여행하고 있는 늙은 신사로” 당시의 영국을 본다. 그는 “아담적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다. 연못에서의 아침 목욕을 그는 “종교적 수행(a religious exercise)”이라고 생각했다. 또 아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도 “아담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은 세계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담적” 순진함(innocence)을 가장 철저하게 그려냈던 것은 루이스(R. W. B. Lewis)의 『미국적 아담』(*The American Adam*, 1955) 이었다. 이 책에서 그는 수많은 예를 들어 가며 미국적 아담의 이미지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태초를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잘 믿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내고 있다.<sup>9)</sup>

## II. 맹신을 넘어선 공리주의적 신앙

독실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러나 종교의 제물이 된 적은 없다. 초기 이민시대의 강렬했던 대중적 청교도 신앙이 무분별한 맹신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성숙한 미국적 신앙의 단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원초적 미국정신 속에서부터 간직되어온 계몽주의적 사고 때문이라고 거시적으로 말해지기도 한다.<sup>10)</sup>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국부들의 균형잡힌 종교적 천재성의 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8) Eliade, M., *Op. cit.*, pp. 97-98.

9) *Ibid.*, pp. 100-101.

10) 이것은 종교적으로 이신론(理神論, deism)적 경향이라고도 말해진다 (Melton, J. Gordon, *Encyclopedia of American Religions*, p. 10).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는 기본적으로 “새로움,” “개심,” “출애굽,” “자유” 등의 개념들에 기초한 청교도적 계약의 형식으로 선포되었었다. 헌법도 넓은 의미의 외적인 계약의 형식이었다. 하지만 헌법의 문구 자체에는 어디에도 기독교적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우주를 지배하는 전능한 존재”에 대한 앤급을 취임연설에서 결코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도 섭섭해 할 청교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혜롭게 “신이여 굽어 살피소서!(So help me God!)”라는 말을 덧붙이며 취임사를 끝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종교문제에 있어서 공리주의자(utilitarian)의 입장에 서 있었다. 즉 기독교전통 자체를 응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과 종교의 상호 필수불가결성 때문에 그는 종교문제를 심각히 생각했었다. 프랭클린(Franklin) 대통령도 “죄는 벌받고, 덕은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저 세상에서든 보상받는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본질이다”라는 식으로 종교를 생각했었다. 특정한 종교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sup>11)</sup> 심지어 19세기 미국의 가장 심원한 도덕적 비견을 제시했었다고 평가되는 링컨(Lincoln) 대통령조차도 성서적 용어들과 이미지들을 자주 빌어 쓰면서도 교회종교(church religion)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즉 종교를 신앙의 차원으로 보다는 공공질서(public order)의 일부로 보았고, 또 국민의 도덕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버팀목으로 여겼던 셈이다.

미국의 통치자들의 이런 미묘한 종교관은 소위 ‘대통령의 교회 다니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성직자들을 평소에 골치아픈 존재들이라고 말했던 제퍼슨(Jefferson) 대통령도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갔었다. 그래 누구인가 물었다. “잘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왜 그리 열심히 나갑니까?” “글쎄요. 종교없이는 국가를 다스릴 수도, 아니 국가가 존재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군요.”라고 그는 대답했다. 총에 맞은 이후 경호를 평계로 교회를 잘

11) 아이젠하워(D. Eisenhower) 대통령도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깊이 느껴지는 종교적 신앙에 기초되지 못하면 무의미해진다. 하지만 그 신앙이 무엇이든가는 상관없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법원은 헌법적으로 무엇이 종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다 (Konvitz, M. R., "The Problem of a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Religion," In Wood, J. E. Jr., ed., *Religion and the State*,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1985, p. 147). 법원은 그렇게 할 능력도 권리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히 “법은 이단을 모른다”라고 말해진다 (Wood, J. E. Jr., "New Religions and the First Amendment: 'The Law Knows No Heresy,'" In Wood, J. E. Jr., ed., *Religion and the State*, pp. 185-210).

안 나갔던 레이건(Reagon)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종교인들의 지지가 현저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연설때마다 “신의 은총을!(God bless you)”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었다. 또 “국가는 종교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공화당 천당대회에서 꽁꽁연히 했었다.

하지만 미국의 지도자들은 결코 종교에 회생된 일은 없었다. 물론 그들은 종교의 가치를 이해하고 중시하였으며 그를 이용하려 했었다. 그러나 개입의 한계는 결코 넘어서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미국적 정교분리(the separation of church & state)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sup>12)</sup>

### III. 종교적 용광로

미국종교의 전진성은 다원적 종교성(the pluralistic religiosity)의 결과이기도 하다.<sup>13)</sup> 초창기 청교도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었으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종교적 통일성을 추구하기도 했었다. 이것은 곧 국교화(establishment)로 이어졌고,<sup>14)</sup> 독립후에도 헌법(보칙 제

12) 미국 현행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이 지난 실질적 의미에 대하여, Pfeffer, L.,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eparationist Agend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46 (1979): 1-10 참조. 그러나 미국 헌법상에는 사실상 국교금지(no establishment)만이 지적되고 있을 뿐 정교분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은 주의를 요한다. 즉 정교분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헌법에 비하여 사실상 미국의 헌법은 국교화는 피하면서도 국가와 종교간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김종서,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1, 1992. 3, p. 171).

13) 미국종교사를 쓰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다원적 종교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를 가장 풍미한 올스트롬의 책(Ahlstrom, Sydney,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Yale University Press, 1972)이었다고 하겠다. 1980년대 이후에 나온 미국종교사 책들은 거의 다 이 경향을 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종교의 다원성을 잘 드러내면서 많이 읽힌 책으로는 알바니즈의 것(Albanese, Catherine L., *Religions and Relig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1)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책은 미국종교의 절저한 다양성(diversity)을 보여주면서도 반면에 미국종교사를 면면히 흘러내리고 있는 일종의 천년왕국주의(millennialism)적 일관성(unity)을 또한 조화롭게 잘 자극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14) 최근 버틀러(Butler, Jon, *Awash in a Sea of Faith: Christianizing the American Peop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같은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통설처럼 식민지 시대의 미국이 자유롭게 선택된 종교를 찾아온 유럽인 청교도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그러했듯

1항)에서 국교금지가 명시되었으나 (1833년 매서츄세스주가 포기할 때 까지) 실제로는 계속 국교가 용인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일단 미국교화 (disestablishment)<sup>15)</sup>되면서부터 미국에서는 하나의 광적인 신앙에 편협된 물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적 풍토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왔다. 이때쯤부터 미국에서 종교는 점차 공공질서의 일부이기보다는 개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변화된다. 토크빌 (De Tocqueville)이 당시 미국교회와 국가간의 분리를 격찬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sup>16)</sup>

물론 미국의 종교다원주의는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이 완전히 다른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동양종교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종교들이 요즈음에는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sup>17)</sup> 그래도 헬레비전의 뉴조게임에서 ‘종교’ 범주를 택하면 어김없이 성경에 관한 문제가 물어지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즉 미국은 종교다원

이 기독교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했었다. 오로지 국교제도가 기독교를 그나마 살아남도록 유지시켜 주었다고 한다. 전설적이어 왔던 청교도의 정신적 지주역 할을 철저히 주변화시키고 또 비신화화 해 버리고 있는 셈이다 (Moore, R. Laurence, “American Religion as Popular Culture,” Religious Studies Review, 18/3, 1992, p. 91에서 재인용).

- 15) 이러한 미국교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미국종교들의 빠른 다원화(pluralization)였다고 할 것이다. 또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던 당시 소종파 운동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우스노 같은 학자는 정부 기능의 성장이 종교의 역할들을 빼앗아 가면서 종교가 지니고 있던 공공성도 또한 해체시켜놓음을 지적하고 있다 (Marty, Martin E., *Review of: Wuthnow, Robert J.,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Society and Faith since World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88, Religious Studies Review, 15/4, 1989, p. 310).

- 16) Bellah, R. N. et al., *Habits of the Heart*, p. 223.

- 17) 오늘날 미국내의 두드러지는 10 대 종교(파)를 꼽는다면, 가톨릭(Roman Catholics), 동방정교(Eastern Orthodox), 자유주의 개신교(Liberal Protestant), 보수 복음주의(Conservative Evangelical), 성결교(Holiness), 오순절·카리스마적 (Pentecostal-Charismatic) 종파, 유태교(Judaism), 이슬람(Islam), 불교(Buddhism)와 힌두교 (Hinduism), 인디안 종교(Native American religions)를 흔히 거론한다. 물론 가톨릭이 5000 만명으로서 최대의 단일 종파이다. 자유주의 개신교는 성공회 (Episcopalians), 루터교(Lutherans), 장로교(Presbyterians), 감리교(Methodists), 침례교 (Baptists) 등에서 주로 교회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s)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들이 해당된다. 자유주의 개신교와 보수 복음주의파는 각각 4000 만명 정도의 신도들이 있는데, 보수파 중 남침례교 교단이 1600 만명 정도로 최대이다. 최근 오순절 종파의 급성장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0 대 종교(파) 외에는 신도수 300 만에 달하는 몰몬교(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로부터 불과 몇 명의 신도만을 가진 다양한 종교(파)들이 있는 셈이다 (Melton, J. Gordon, *Encyclopedia of American Religions*, pp. 20-22).

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자면 유태-기독교 전통이 주류가 되어 있는 종파다원주의(denominational pluralism)의 나라인 것이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 그리고 가톨릭과 유태교 등이 나름대로 빽빽히 어우러져 어느 한 종파의 전횡을 상대적으로 막아왔다고도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파들이 어느 하나에 끌리지 않다보니 서로 간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통분모를 창출해내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이민들이 싸들고 왔던 신앙 보따리들은 2세나 3세들의 시대가 되면 어느덧 그 고유한 성격들은 잊어 버린다. 그 대신 소위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 즉 모든 종파를 초월하면서 미국인이기에 믿게 된 이른바 “미국종교(the American Religion)”로 통화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허버그(Will Herberg)는 미국을 “하나의 종교적 용광로(a religious melting pot)”라고 불렀다. 즉 『개신교, 가톨릭, 유태교인(Protestant, Catholic, Jew)』<sup>18)</sup>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종교사는 종교와 민족성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허버그는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한때 미국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개신교가 약화되어 마침내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고,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 했던 여러 종파들이 결국 세 주요 종교 전통들(개신교, 가톨릭, 유태교)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상실하게 됨을 간파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좀더 정교한 도식화는 해몬드(P. E. Hammond)의 주장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즉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만연되어 있었던 종교다원주의는 각개 전통종교들을 상대화시키고 마침내 미국인들을 “덜 종교적(less religious)” 이게 하여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약화된 전통 종교들은 오직 선택의 문제나 생활을 위한 좋은 의견정도로 전락하고 더 이상 절대적인 신념체계로서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종교적 경향이 있게 마련이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되자면 그의 모든 질서가 끊임없이, 또한 의미있게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9)</sup> 따

18) Herberg, Will, *Protestant, Catholic, Jew: An Essay in American Religious Sociology*, New ed., rev. Garden City, N. Y.: Anchor Books, 1960.

19) 이렇게 사회의 종체적인 의미의 질서를 버티어주는 상징적 우산으로서의 종교 개념은 이미 뒤르켐(E. Durkheim)의 “뒤덮어 주는 실재(overarching reality)”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 베거(P. L. Berger)의 “성스러운 덮개(sacred canopy)”의 개념 등에서 누누히 거론된 바 있다.

라서 전통종교들 대신 미국에서는 가장 널리 인정되는 최소한의 규범으로서의 법(law)제도가 질서를 유지하고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 이것은 다시 국가로 하여금 종교적 성격을 떠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인한 아노미(anomie)를 극복하려는 시도로부터 미국인들은 새로운 국민적 대체신앙(surrogate faith)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말이다.<sup>20)</sup>

하나의 미국시민이기에 믿게 되는 바로 이런 미국의 새로운 국민적 신앙을 이른바 “공민종교”(civil religion)라고 한다.<sup>21)</sup> 그리고 이것은 케네디(J. F. Kennedy) 대통령에서 잘 구체화 되었다고 벨라(R. N. Bellah)는 주장한다.<sup>22)</sup> “나는 국민 여러분과 전능한 신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든가,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관용으로부터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신앙”이라든가, 또는 결론에서 “신의 축복과 그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신의 과업이 바로 우리의 과업임을 알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갑시다”라고 그는 말했었다. 가톨릭 신도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일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케네디는 취임사에서 유난히 “하나님(God)” 같은 종교적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썼었던 셈이다.<sup>23)</sup> 하지만 이 연설을 들었던 어느 미국 개

20) Hammond, P. E., "Pluralism and Law in the Formation of American Civil Religion," In Bellah, R. N. & P. E. Hammond, *Varieties of Civil Relig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pp. 138-163. 이 논문은 특히 공민종교의 형성을 미국적 종교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이론화하고 있음이 특히 주목된다. 또한 전통적 종교의 대체종교 형식으로서 미국의 법을 상정하고 있음은 독특한 시각이다.

21) “공민종교” 대신 “공화국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Republic),” “미국적 생활 방식의 종교(the religion of American Way of Life),” “미국의 神道(American Shinto)” 등의 용어가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해왔다. 한편 “공민종교”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루소(Rousseau)이다. 루소는 그의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에서 “한 인간이 그것 없이는 훌륭한 공민이나 충실했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회적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사상들로서 “신의 존재,” “삶의 기대,” “미덕의 보상과 악덕의 처벌,” 그리고 “종교적 아량” 등을 꼽고 있다. 또 뒤르켐(Durkheim)에서는 이와 유사개념이 “공통종교(common religion)”라는 용어로 나타나고 있다.

22) Bellah, R. N.,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1 (1967): 1-21. 물론 벨라이전에도 미국사학자들의 민족주의의 종교적 차원인 “미국적 신조,” “민주적 신앙,” “문화종교”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1950년대에는 종교학자들이 미국인의 “공통적 신앙(common faith)”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G. Winter, M. Marty, R. Eckhardt, P. L. Berger, J. Smylie, S. Mead 등)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문적 대상이 된 것은 역시 벨라에서부터라 해야 할 것이다.

신교인들도 그것을 가톨릭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미국인 모두에게 찾아질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되었다.

#### IV. 공민종교의 의미

결국 종교적 신앙을 기반으로 미국적 자기 이해가 교묘하게 초월적으로 송화된 것이 바로 공민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이것은 단순한 청교도 신앙의 연장은 아니다. 값싼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와도 물론 구별된다. 신개념을 사용한다는 것만 보아서는 두 말할 필요없이 종교적이다. 결코 세속적 이데올로기들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배경으로서 성서적 원형들(Biblical archetypes)인 '약속의 땅,' '선민의식' 등 여러 기독교적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개념이 캐네디에서처럼 특정교파의 신을 뜻하지 않고, 아무도 공식연설에서 '그리스도(Christ)' 같은 순수 기독교적 용어를 쓰지 않는 점은 중요하다.

반면에 미국의 국가와 정치는 종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늘 지적되어 왔었다. 토크빌은 이미 미국의 교회를 "미국사람 가운데 민주적 공화정이 유지되도록 강력히 공헌하는 정치제도"라고 말했었다. 또 존 스마일리(John E. Smylie)는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은 국가에 특히 세 가지 교회적인 특성들을 부여했다"고 했었다. 즉 국가는 (1)역사 속에 신의 의미심장한 행위를 주로 대리하며, (2)개개의 미국인들이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되는 주요 공동체이며, (3)또 정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었다.<sup>25)</sup> 그러나 미국의 공민종교가 다시 국교화(establishment)를 뜻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종교적 국가자상주의나 민족주의와는 완전히 다름이 강조되어 왔다. 즉 공민종교의 개

23) 물론 캐네디가 최초로 그런 것은 아니다. 와싱턴은 "우주에 존재하는 전능한 존재" 등의 말을 썼고, 애덤스(Adams), 제퍼슨(Jefferson), 메디슨(madison) 등의 대통령들이 유사한 표현들을 쓴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신이라고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1821년 먼로(Monroe)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연설에서부터이다.

24) 이러한 형식의 공민종교 정의는 Bellah, R. N., *The Broken Covenant: American Civil Religion in Time of Trial*, N.Y.: A Crossroad Book, 1975, p. 3 참조.

25) Mead, Sidney E., "The Nation with the Soul of a Church," In Richey, Russel E. & Donald G. Jones eds., *American Civil Religion*,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4, p. 67.

넘은 헌법(보칙)상의 종교조항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비국교적이다. 또 교회와 국가 사이의 엄격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공민종교는 식민지시대를 지나서 독립선언과 헌법을 성서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적인 모세(Moses)였던 와싱턴으로부터 생겨났고 뒤이은 미국적 예언자들(prophets)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중심으로 노예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미국적 신앙을 창조해내는 미국적 구세주(messiah) 예수(Jesus)인 링컨(A. Lincoln)은 제티즈버그(Gettysburg)의 신약성서로 공민종교의 전환점을 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새로운 가나안으로서의 미국은 선택받은 자들의 땅이지만, 그 선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퍼졌다. 즉 그것은 인간적인 편에서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유의 이상에 충실하는 것은 존 윈스롭(John Winthrop)의 『신명기』에서 벌어온 말씀인 “삶을 선택합시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은 노예제도 반대운동과 국민의식의 형성 및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링컨의 제티즈버그 연설이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리고 케이커(Quakers) 운동과 조시아 스트롱(Josiah Strong)의 사회복음(social gospel)도 같은 맥락에서 등장했다.<sup>26)</sup>

남북전쟁은 실로 국가적 의미에 대한 심각한 각성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 죽음, 회생, 부활 등의 새로운 주제들이 공민종교에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제티즈버그 연설은 상징적인 종교행위였다. 그것은 괴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성스러운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상징은 곧 실체적인 제의적 표현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전몰자들을 위한 국민묘지가 건립되고 현충일(Memorial Day)이 생겨났다. 미국의 현충일 의례행사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의 제의행사이든 모든 공동체를 청기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죽음에 대한 평소의 공포감이 퍼레이드로 구성되는 집단적 행동에 의하여 극복된다. 이러한 일련의 제의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신앙과 계급과 국가적 집단들을 성스럽게 통합시키는데 다시 한 번 철저히 공헌하게 되며, 산 자들은 국가를 위한 회생을 두려워하

26) 남북전쟁과 공민종교의 관련성에 대하여 Bellah, R. N., *The Broken Covenant*, Ch. 2 참조.

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27)</sup>

예수가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회생했다고 하듯이 링컨 자신의 죽음이 철저히 공민종교의 상징형성에 바쳐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858년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 그는 성공한 변호사이며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잘 알려진 '에이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이었다. 정치적 경험과 재력을 겸비한 체 가문 좋은 점 땀과 결혼하고 부자들과 친구인 위세당당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1860년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는 갑자기 초원에서 온 비천한 계급의 '아be 링컨(Abe Lincoln)', 정직한 링컨으로 변신된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그의 생명을 "만민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전제에 바친 진정한 국민"인 "순교한 지도자"로 이미지가 바뀌어진다. 링컨의 죽음은 국민 '통합의 계단' 위에서 부활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sup>28)</sup>

그래서 워싱턴과 링컨은 공민종교의 성인들(saints)이요, 워싱턴 디 씨(Washington D. C.)와 하이드 파크(Hyde Park)는 성스러운 유적지들이라고 한다. 헌법이 성서라면 그것이 존중되는 법원이 바로 공민종교의 교회이고, 판사들은 사제들이라고 비유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공립학교들은 주일학교인 셈이다. 결국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공민종교의 신앙공동체인 것이다.

물론 국가의 "시련의 시기(Time of Trial)"마다 공민종교는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다. 첫번째 시련의 시기는 독립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미국인들이 자신의 일들을 과연 자신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자유제도를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고 한다. 공민종교의 새로운 신학적인 상징들이 바로 이 시기에 창출되기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시련의 시기는 노예제도의 문제에 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남북전쟁은 노예제도의 죄때문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또 이것은 미국사회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 이었으므로 궁극적으로 미국 안에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제도화를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논의된 공민종교의 다양한 제의적 상징들이 생겨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세번째 시련의 시기에 처해 있다고들 한다. 이 시기의 핵심문제는 미국인들이 이미 지금까지 달성해왔던 것들을 과연 세계 속에서 계속 고집할 수

27) 미국 현충일에 대한 종교적 상징연구는 Warner, W. Lloyd, "An American Sacred Ceremony," In Richey, R. E. & D. G. Jones, *Op. cit.*, pp. 89-111 참조.

28) *Ibid.*, pp. 101-102.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세계로 향한 미국의 책임있는 행동의 문제를 뜻한다고 하겠다. 공민종교의 세계적인 상징확대가 요청되어온 셈이다.<sup>29)</sup> 그러나 공민종교의 시대적인 다양한 양태변화<sup>30)</sup>에도 불구하고 미국적 자기 이해가 초월적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항상 같다.

대중문화를 한 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티(E.T.)나 슈퍼맨, 램보 그리고 포레스트 겹프(Forrest Gump)에 이르기까지 미국영화들은 성조기 등 애국심의 소재를 매우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다. 또 아무도 그런 애국심을 유치하다고 탓하지 않는다. 더욱 이런 것을 놓고서 미국사회에서 어용시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민종교의 이론바 '체감교세'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에 있어서 종교적 신앙의 뿌리는 다양한 사회문화 속에서 지극히 단단히 포괄적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에 맹신하지 않고, 다종교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내면서도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종교적 정서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식 종교 다루기' 방식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독특한 미국식 종교 다루기의 구체적인 산물이 바로 공민종교가 아닐까?

- 29) 이것은 벨라의 "시련의 시기" 논의에 기반을 둔 이해이다. 이와 유사하게 매티 런(McLoughlin)은 "위대한 각성(Great Awakening)"들의 맥락에서 의미들을 해석해내기도 한다. 즉 "청도교적 각성"(1610-40)은 영국식 입헌왕정을 창조해냈고, "미국의 제1차 위대한 각성"(1730-60)은 공화정을 기초하였으며, "제2차 각성"(1800-30)은 연합과 재손식의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고 한다. 또 "제3차 위대한 각성"(1890-1920)은 루즈벨트(Roosevelt) 시대와 복지국가를 가져왔고, "제4차 위대한 각성"(1960-90)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거부와 세계자원들에 대한 보존과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역 및 국제적 기구들을 향한 것들이라고 한다(McLoughlin, William G., *Revivals, Awakenings, and Ref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한편 이와 연관되어 공민종교 이론 자체도 미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종종 강조된다. 즉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등에서의 공민종교적 시도들이 탐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도 미국적인 공민종교의 요소들이 반드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Bellah, R. N. & P. E. Hammond, *Varieties of Civil Relig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pp. 27-118.)
- 30) 이런 맥락에서 공민종교의 차원이나 양상 및 기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신앙적, 의례적, 구조기능적 차원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기도 하고 (J. Wilson), 민족종교적, 보편적, 종교민족주의적, 민주주의적, 경건적 요소가 치적되기도 한다(Richey & Jones). 또 사회통합적(integrative), 합법화(legitimating), 예언자적(prophetic) 기능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G. Gehrig).

아무튼 이것은 대단한 종교열기로 인해 종교문제가 복잡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Albanease, Catherine, *Sons of the Fathers: The Civil Religion of the American Revolu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67.
- Albanese, Catherine L., *Religions and Relig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1.
- Ahlstrom, Sydney,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Yale University Press, 1972.
- Bellah, R. N.,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1 (1967): 1-21.
- Bellah, R. N., *The Broken Covenant: American Civil Religion in Time of Trial*, N.Y.: A Crossroad Book, 1975.
- Bellah, R. N., et al., *Habits of the Heart*, New York: Harper & Row, 1985.
- Caplow, Theodore, et al., *All Faithful People: Change nad Continuity in Middletown's Relig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 Gilpin, W. Clark, "Recent Studies of American Protestant Primitivism," *Religious Studies Review* 19/3 (1993): 231-235.
- Hammond, P. E., "Pluralism and Law in the Formation of American Civil Religion," In Bellah, R. N. & P. E. Hammond, *Varieties of Civil Relig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pp. 138-163.
- Eliade, Mircea,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 Herberg, Will, *Protestant, Catholic, Jew: An Essay in American Religious Sociology*, New ed., rev. Garden City, N. Y.: Anchor Books, 1960.
- Konvitz, M. R., "The Problem of a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Religion," In Wood, J. E. Jr., ed., *Religion and the State*,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1985, pp. 147-165.
- Marty, Martin E., Review of : Wuthnow, Robert J.,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Society and Faith since World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88, *Religious Studies Review*, 15/4 (1989):

307-311.

- McLoughlin, Willia G., *Revivals, Awakenings, and Ref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Mead, Sidney E., "The Nation with the Soul of a Church," In Richey, Russel E. & Donald G. Jones eds., *American Civil Religion*,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4, pp. 45-75.
- Melton, J. Gordon, *Encyclopedia of American Religions*, 4th ed., Washington D.C.: Gale Research Inc., 1993.
- Moore, R. Laurence, "American Religion as Popular Culture," *Religious Studies Review*, 18/3 (1992): 190-195.
- Pfeffer, L.,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eparationist Agend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46 (1979): 1-10.
- Warner, W. Lloyd, "An American Sacred Ceremony," In Richey, Russel E. & Donald G. Jones, *American Civil Religion*, pp. 89-111.
- Wood, J. E. Jr., "New Religions and the First Amendment: 'The Law Knows No Heresy!'" In Wood, J. E. Jr., ed., *Religion and the State*,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1985, pp. 185-210.
- 김종서,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1, 1992. 3, pp. 165-181.